

지역 소식통

군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군산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사업 등의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군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며, 선정된 단체는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신청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단체 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제출해야 하며,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세관, FTA기업지원 공익관세사 운영

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이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산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센터에 비영리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관세사를 운영한다.

이는 한 중 FTA가 본격화되면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FTA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관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무료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상담하고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하며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교육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로 이주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익산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실질적인 농업정보를 제공해 성공귀농인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귀농귀촌교육은 2월 접수를 받아 50명을 선정하여 전반기 기본반을 편성하고, 이후 전반기 기본반 수료생과 후반기 신청 인원(원서접수 7월 예정)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정왕원기자

# 군산·익산 3·1절 행사 열려

## 군산시, 구암동 3·1운동기념관서 기념식·재현 행사

군산시가 제98주년 3·1절을 맞아 3·5만세운동의 발상지인 군산 구암동의 3·1운동기념관에서 기념식과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출정선포를 시작으로 구암동의 3·1운동 기념관에서 군산경찰서까지 이어진 평화시위 대행진 퍼포먼스와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5만세운동 재현행사에서는 98년 전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외쳤던 선조들의 합성을 재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구암동선의 3·5독립만세 운동은 한강 이남 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사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이 서려있는 군산의 자긍심"이라며 "국정 혼란과 경제위기의 이따에 선

조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기상을 본받아 군산의 시민들이 단합하여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건설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3·1절 기념행사 개최

익산시는 제98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명이 참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독립운동 유가족인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관계자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립무용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의 선창에 따른 만세삼창, 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위기 때마다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했던 선조들의 기개와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시민들도 단결하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번영의 익산

시를 만들어 주자"고 밝혔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지난 2월 28일 전북 내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재일 학도병 이석규 용을 찾아 뵙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조국 해방을 위해 희생한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나리사랑 태극달기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주요 도로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익산=정왕원기자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

### 쌀 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GAP인증 등 5000여점 토양검정 키로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맞춤형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농가의뢰 토양검정 서비스 외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 논·밭 대표필지중심 토양검정 연구사업,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5000여점의 토양을 검정할 계획이다.

토양 화학 분석항목은 총 10항목으로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아미온(칼슘, 마그네슘, 칼륨), 규

산, 석회소요량, 염기치환용량, 전기전도도(EC)이며 최대 7일 이내의 신속한 검정을 하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5~10개 지점에서 15~20cm 깊이로 약 1kg 정도의 양을 혼합해 필지자번호, 면적, 재배작물명 등을 기록해 가까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분석기간이 약 1주정도 소요되므로 겨울주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토양을 제대로 알아야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 토양검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토양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63-859-4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4,000여점 가량의 토양시료를 분석하고, 해당 토양에 대한 적정시비량을 처방하고 있다.

토양에 맞는 시비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방지에 힘써 토양환경을 보존유지하며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익산=정왕원기자

## 군산시, 3월~11월까지 매주 주말 홍보미션 이벤트·거리공연 진행

군산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월명동 초원사진관 및 근대역사지구 일원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미션 이벤트와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미션이벤트는 원도십 일원에서 진행되며, 근대역사복장을 입고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근대역사 도시 군산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초원사진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션을 받아 수행을 완료한 팀에게는 사진 무료인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군산시 홈페이지나 개인 SNS에 미션참여 후기를 게시하는

관광객 선착순 30명에게 군산의 특산품을 증정한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토요일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기획 거리공연도 진행된다.

공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계절과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계획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에는 근대역사가 살아 숨쉬고 유명한 먹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관광지가 많다"며 "주말 이벤트 제공을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근대역사의 교훈과 더불어 오감을 만족하는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원 후보 공개 모집

군산시가 2017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 의원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2016년 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정기회 2회, 임시회 5회의 바쁜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임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게 될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30명을 모집한다.

어린이의회의 모집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접수기간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다.

최상근 어린이행복과장은 "군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시의 교육, 복지, 안전 등에 관한 정책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논의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어린이행복과(☎ 454-417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 공개

군산시가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군산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공시)에 공개했다.

군산시 재정공시는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시행된다.

공시내용은 2017년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군산시의 201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9226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28억 원이 감소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904억 원보다 678억 원 적게 나타났다.

일반회계기준 세입예산의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7%, 자체수입에 자부채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6.09%이며,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나타났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제는 8월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군산시 살림살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과 예산 절감 등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